

주호영, 비대위·당직 인선 계파 안배 할까...당 통합 첫 시험대

친윤계 얼마나 참여 할지 관심 초재선 그룹 우선 안배 유력 재선그룹 김성원·김정재 거론 당직은 현역 위주 발탁 가능성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비대위 지도부 인선에 착수했다. 대선 승리 이후 친윤계와 이준석 전 대표 사이 내홍으로 당이 몸살을 앓았던 만큼 이번 인선은 주 위원장의 당내 갈등 봉합 의지를 가능하게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주 위원장은 취임 후 첫 출근날인 이날 수해 긴급 당정을 빼고는 공식 입장을 비웠다. 오전 9시께 국회 본관에 마련된 비대위원장으로 출근, 사무처로부터 당무 보고를 받고 인사 문제를 포함해 당면 현안들을 점검하는 데 집중했다.

급선무는 비대위 인선이다. 주 위원장은 비대위 구성을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 가급적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 초중으로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상임전국위원회 의결까지 신속하게 진행해 정부 출범 100일을 맞는 17일 전엔 당 수습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번 비대위 구성은 각계의 대표성과 원내·원외를 골고루 안배하는 콘셉트로 추진되는 가운데 친윤계가 얼마나 참여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비대위는 총 9명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주 위원장과 권상동 원내대표, 성일중 정책위 의장 등 3명은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일단 비대위원 6명은 원내외를 절반씩 섞어 인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 인선과 관련해 "당의 안정과 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모실 계획"이라고 강

조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두 세분 정도 모실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윤핵관을 포함한 '계파 안배' 요소와 관련해선 "그런 시비에서 자유롭게 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성 정책위의장도 오전 CBS 라디오에서 "중립적인 인사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혁신과 쇄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찾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거들었다.

비대위원 구성과 관련해 당 안팎에선 다양한 마법이 오르내린다.

원내에서는 당내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초재선 그룹을 우선 안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과정에서 '범윤계' 의원들이 일부 자연스럽게 포함되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초선 의원 절반이 참여할 '연관장'이 비대위 출범에 주요 동력으로 작용한 바 있다.

당장 재선 그룹에서는 주 위원장이 원내대표 시절 원내수석대표로 합을 맞췄던 김성원 의원이나

여성인 김정재 의원 등이 거론된다.

초선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서실 정무팀장을 지낸 정희용 의원, 6·1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입성한 조은희 의원 등 이름이 오르내린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인 정 의원의 경우 오랜 '여의도 경륜'을 토대로 대변인 하마평에도 오르고 있다.

원의 인사 중에서는 경제통으로 꼽히는 윤희숙 전 의원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주 위원장이 인선할 주요 당직으로는 당 3역 중 하나인 사무총장이 있다. 사무총장 인선을 새로하면서 부총장 그룹도 함께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해진다.

여기에 대변인과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등도 당 운영의 주요 축을 구성한다.

당직에 발탁 가능한 인재풀로는 현역 의원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여당으로서 내부 전열 재정비를 비대위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로 꼽는 만큼, 장악력이 있는 원내 인사 중에

물색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관측이다.

당정 간의 소통 채널을 다지는 의미에서 지난 대선 캠프·선대위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손발을 맞춘 인물들까지 범위를 넓혀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윤핵관인 권상동 원내대표 등이 이미 당연직으로 지도부에 포함되는 데다가 주 위원장 본인도 상당수 친윤계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당직 인선 과정에서 친윤계 색채가 짙은 인물을 추가 등용하는 부분은 당내 비주류 일각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무총장의 경우 5선인 주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4선)·성 정책위의장(재선) 등의 기존 지도부 선수를 고려해 재선 내지 3선 그룹에서 중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상당수 3선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장 또는 중앙당 시도위원장 등을 맡고 있는 만큼 비슷한 체급의 원외 인사까지도 인재풀을 넓힐 가능성이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법적 대응' 강행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0일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비대위 전환과 관련, 서울 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날 비대위 전환으로 대표직을 박탈하게 된 이 대표가 이에 반발, 법적 대응에 들어간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절대 반지"에 눈이 먼 사람들이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많고, 심려가 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대위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급박성 때문에 가처분을 해야 했다. 수해에 마음이 아플 국민들을 생각해 조용히 전자소송으로 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성상남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중앙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지난달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배현진·조수진·윤영석·정미경 최고위원 등의 출사퇴로 지도부가 붕괴 수순에 이르면서 비대위 전환 과정을 밟게 됐다. 이어 전 날엔 전국위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며 '주호영 비대위'를 공식 출범시켰다.

당헌상 비대위로 전환되면 이 대표를 비롯한 전임 지도부는 자동 해임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아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법적 판단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앞줄 맨 오른쪽)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룡중학교 체육관 임시대피소를 찾아 침수 피해를 본 구룡마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힘 광주시당 김정현 위원장 취임식 대신 봉사활동

국민의힘 김정현 광주시당위원장이 10일 취임식 대신 도심 하천인 황룡강 장륙습지에서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 정화 활동으로 대신했다.

김 위원장은 당일 80여명과 함께 장륙교 입구에서 송정1교까지 1.6km 구간에서 하천과 산책로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다.

김 위원장은 "황룡강 장륙습지는 오염물질을 걸러주는 거대한 정수기이고, 홍수와 가뭄 조절지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습도와 기온을 조절하는 등 그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광주 도심 내 최초의 습지보호지역을 지켜내기 위해 취임식 대신 자연 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황룡강 장륙습지는 지난 2020년 12월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으며 멸종위기종인 수달과 삿, 새호리기, 흰목물떼새 등을 비롯해 829여 종의 다양한 야생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

국민의힘 전남도당, 조직 개편 완료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10일 제 7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도당 부위원장과 각종 상설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의결하는 등 조직 개편을 완료했다.

전남도당은 박상호 수석부위원장(전 류준상 국회의원 비서관)을 비롯, 모두 9명의 부위원장과 2명의 전국위원, 19명의 상설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날 임명된 전남도당 주요 당직자들은 도내 10

개 당협 추천과 지난 대선·지방선거에서 펼친 특표 활동, 당세 확장 기여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도당은 설명했다. 김화진 도당 위원장은 "당 활동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해온 인사와 함께 혁신과 쇄신을 위한 조직 구성에 중점을 뒀다"며 "당세확장을 위한 당원 배가 운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대통령이 스텔스기인가, 폭우에도 모습 안보여”

민주 박홍근, 윤대통령 비판 오세훈도 책임서 자유롭지 못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아비규환의 와중에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며 "국민이 발생 위험에 처해 있는 동안 콘트롤타워인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제때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이 불바다가 되는 때에 대통령은 뭐하고 있었느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급기야 SNS상에 무

정부 상태란 말이 급속도로 번졌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무원 출근 지침을 빼면 어떤 상황 대응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이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전화로 위기상황에 대응을 했는데 대통령이 무슨 스텔스기라도 된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의 인식도 심각하다. '대통령이 있는 곳이 상황실'이라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는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국가위기관리센터라는 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다음날이 돼서야 '되

때 보니 내가 사는 아파트가 언덕인데도 1층이 침수될 정도로 엄청났다'고 하던데, 심각성을 본인의 눈으로 확인하고도 그냥 퇴근한 것을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일이다. 이미 수도권에 폭우 예보가 있었으면 위기대응 총사령관으로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실시간 대응을 진두지휘해야 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삼아 위기대응 시스템을 제대로 갖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시가 집중호우 대비를 위한 예산을 900억 원이나 삭감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며 "지난 번 서울시장 때 우면산 산사태를 겪고도 이렇게 안이한 대처를 한 것이 더 충격"이라고 비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회사 사정상, 매매 합니다

- 1. 신안동 176평, 대인동 156평
-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월 200만원 정도 수입중
- 4. 매매 - 평당 1300만원씩
일시불 조정가능

문의. 010-3605-5000